뉴미디어 시대, 포교도 새 길이 필요하다

현불논단



덕안 스님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어렸을 적 고향에는 극장이 없었다. 방학이 되면 마을 공터에 천막을 치고 영화를 상영했다. 화면은 작았지만 그 천막은 그 시절 사람들이 세상과 만나는 창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매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해 왔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보급됐고, 200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일상이 됐다. 이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손바닥 안의 화면으로 정보를 얻고 관계를 맺는다. 2019년 코로나19 펜데믹은 온라인을 기반한 '언택트(Untact)' 문화를 일상으로 만들었고, 2022년 말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사고와 표현 방식까지 바꿔 놓았다. 이 변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과 접속하는 방식의 변화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 앞에서 불교 역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대중은 사찰보다 먼저 화면 속에서 불교를 만난다. 이 첫 만남이 피상적이거나 왜곡된다면, 깊은 가르침에 닿기 어렵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시대의 언어로 전해져 왔다. 원효 대사가 대중의 눈높이에서 불법을 풀어냈고 근대의 스님들이 한문 경전을 한글로 옮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가르침을 낮춘 것이 아니라 전달의 문턱을 낮춘 수행이었다.

시공간의 제약이 거의 사라진 시대
뉴미디어 홍보 포교, 선택 아닌 필연
유튜브 중심, 종단 네트워크 연계해야

이처럼 시공간의 제약이 거의 사라진 시대에 뉴미디어 홍보와 포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시대의 언어로 말을 건네지 않는다면, 불교는 깊이를 지키더라도 대중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조계종은 미디어홍보실을 설치하고 종단 홍보와 미디어 활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미디어홍보실은 불교 콘텐츠의 현대화와 종단 뉴미디어 운영, 사진·영상 콘텐츠 관리를 통해 종단의 다양한 활동이 사회에 전달되는 과정을 정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미디어위원과 홍보위원, 실무협의체 제도는 홍보를 어느 한 부서의 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종단 전체의 공동 과제로 운영하기 위한 장치다. 홍보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절제할 것인지를 숙고하는 과정이기에, 이러한 제도는 종단의 메시지가 일관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한다.

2026년의 방향 역시 분명하다. 더 많은 콘텐츠보다 더 잘 연결된 콘텐츠다.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되, 이미 형성된 종단 내외의 네트워크를 연계해 시너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각 사찰과 각 포교 현장에 축적된 이야기를 흩어 두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엮는 것이 과제다.

뉴미디어는 빠르다. 그러나 불교는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제때 말을 건다. 이 시대의 언어로, 그러나 불교의 깊이를 잃지 않고, 대중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는 길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포교의 길을 묻는 이유다.

새해를 맞는 마음

세간과 출세간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새해를 맞았다. 달력을 기준으로 헤아리는 일의 무상함을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옷깃을 여미며 지난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는 경건함을 놓칠 수는 없다.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었고, 정해진 정년도 그만큼 짧아지며 다가섬을 느끼는 순간 멈칫하며 잘 살아왔는지를 성찰하는 굽이이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 사태로 맞이한 2025년은 대통령 탄핵과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한 그의 배우자와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며 한 해를 어지럽게 장식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맞서 싸운 시민들의 저항이었다.

미국의 비상식적인 관세 부과로 촉발된 경제 위축도 국내 불황으로 이어지며 우리들의 삶을 여전히 옥죄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거친 이익 추구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일상의 고단함으로 몰려들고 있다.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보지만, 새해 경제 예측 역시 낙관보다는 비관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이 상황이 지니는 복잡성과 복합성을 생각하면 섣부른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선 잠시 물러서서 자신의 몸가짐을 바로잡으면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개인들의 자세는 전문가들의 공정성을 전제로 하는 의견들과 합해지면서 실천적인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나의 몸가짐부터 바로잡으면서
연결된 관계에 희망 주고받아야
화엄불교 오랜 명제 실천하는 일

물론 쉽지 않은 과제이다. 우리들 자신의 일상이 온갖 정보들로 넘쳐나면서 정신을 차리기 어렵고,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극단적인 견해들이 거대 양당의 정파적 이익과 맞물리며 폭풍처럼 몰려다니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뒤로 밀리거나 아예 들려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새해에는 이 난국을 넘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 과연 가능할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몰려들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길은 바로 나 자신의 몸가짐부터 바로잡으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망들로 희망을 내보내고 또 받는 일이다. 21세기 들어 화엄불교의 오랜 지혜인 '모든 것은 연결망'이라는 명제가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는 사회과학 담론과 신경과학의 뇌세포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작동할 수 있고 또 온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런 연결망에 관한 주목은 나 자신의 인식과 행위가 다른 존재하는 것들과 긴밀히 연결된 사실에 대한 주목이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인식과 행위는 나 자신만의 것일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결돼 다른 사람은 물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오래된 깨달음'의 재확인인 셈이다. 필자는 그것을 호모 인드라네티우스(homo indranetius)라는 새로운 인간형으로 구체화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새해는 연락이 뜸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이 연결망을 새롭게 새기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다.

社 說

'힙'해진 불교, 이제는 깊어져야 한다

'힙(Hip)한 불교'.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형용모순처럼 느껴졌던 이 말이 이제는 시대의 아이콘이 됐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MZ세대가 몰리고, 불교문화유산이 세련된 굿즈와 콘텐츠로 재해석되며, 템플스테이·사찰음식·선명상은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았다. 불교는 산사를 넘어 쉼과 정돈, 의미 있는 삶을 찾는 이들의 일상으로 들어왔다.

이 흐름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5 종교인식조사: 주요 종교 호감도와 종교 영향력, 효능감'에서 불교의 호감도는 54.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0~20대와 30대에서의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탈종교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불교는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가장 부담 없는 종교, 가장 친근한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쉼·정돈·의미 찾는 세대에 '힙'한 불교
호감도 '최고'에도 종교활동은 '외면'
외적 호감이 수행·신행 이어져야

이러한 변화는 분명 고무적이다. 종교가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시대에 불교는 문화와 감성, 체험을 매개로 다시 대중과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불교 굿즈가 인기를 끌고 명상과 사찰음식이 일상 속 선택지가 됐다는 사실은 불교가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새해를 맞은 지금, 불교는 이 성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호감도는 높아졌지만, 신앙의 깊이는 그만큼 따라오고 있는가.

앞서 12월 2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5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에서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불자는 3%에 불과했다. 주요 종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또 '당신의 삶에서 종교활동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중요하다'고 답한 불자는 35%에 그쳤다. 불교에 대한 인식은 부드러워졌을지언정, 신앙 공동체로서의 결속력과 유대감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다.

물론 법회 참여 빈도만으로 신앙의 깊이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자의 15%가 종교활동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는 점, 젊은 불자일수록 종교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불교가 '좋은 이미지'로 소비되는 데 그친다면 힙함은 유행으로 끝날 수 있다.

지금 불교 앞에 놓인 과제는 분명하다. 외적 호감과 인기를 내적 수행과 신행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불교가 건네는 '쉼'과 '정돈'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종교로서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수행이다. 선명상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명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리며,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경험은 불교가 지닌 가장 본질적인 힘이다.

힙한 콘텐츠로 문턱을 낮춘 불교가 수행을 통해 삶의 도구로 작동할 때 대중의 호감은 신뢰로, 관심은 참여로 깊어질 수 있다.

불교가 힙해졌다는 사실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깊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구성표

재단이사회
이 사 장 일 명
부 이 사 장 경 담
상 임 이 사 오 원
이 사 혜 천
법도화
현 소
한태규

종정 / 총무원
종 정 예 하 대 륜
총 무 원 장 혜 일
종정비서실장 지 명

원로회의
원 로 의 원 혜천 현암
법성 법선
승원

중앙종회
종 회 의 장 도정
종 회 의 원 재단이사회
고봉석경
무착정암
서현보은
동철성운
혜성백운심
여래자
교구종무원장

종무위원
호 계 원 장 동청
교 육 원 장 지언
포 교 원 장 지명
문 화 원 장 제법
기획추진위원장 지광
선거관리위원장 붕원
감 사 원 장 법광
포교부원장 덕산
문화부원장 해동
총 무 부 장 동심
총 무 국 장 보륜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교구 보 해
경기남부교구 지 안
경기북부교구 지 흘
경남교구 덕 운
대구교구 무상심
울산교구 현 산
전북 · 전남교구 지 명
제주교구 제 법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 www.ilbung.org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